

사회

# 송원여중 배구팀도 해체

## 송원여상 이어 ... 재단 무성의·투자 인색 비난 고조

### 지역 체육계 “광주 학교체육 고사 위기” 분노

‘30년 명문’의 송원여중 배구팀 해체를 이어 송원여중 배구팀도 결국 해체됐다.

특히 광주의 학교 체육을 대표하는 두 팀의 해체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재단의 무성의한 태도와 시 교육청·시 체육회 등 관계 기관의 인색한 학생 체육 투자 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송원여중 배구부의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원여중 배구팀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시 교육청을 방문해 학교측의 배구부 운영 과정에서 ▲학교 재단의 인색한 예산 지원 ▲낙후된 숙박 시설 ▲열악한 급식 ▲불안한 진로 등을 이유로 배구팀 해체와 함께 전학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전학 등의 조치가 안될 경우 전원 타 지역 팀으로 옮겨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1학년 3명과 2학년 7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송원여중 배구팀은 광주 지평초 재학 시절 전국 소년체전을 제패하는 등 최고의 실력을 갖춘 배구 유망주들이다.

이와 함께 송원여중 측의 인색한 지원 등에 불만을 품은 배구팀 코치가 내부갈등에 시달리다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25일 송원여중과의 협의를 통해 송원여중 배구팀을 해체하고, 광주체육중으로 배구부원 전체를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송원여중과 같은 재단인 송원여상 배구팀도 지난 10일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 송원여상 배구팀은 지난 1978년 창단해 계속자·김영숙·김남순·선미숙 등 스타급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전국대회에서 수십차례 우승하는 등 전국을 대표하는 배구 명문이다.

이 같은 광주의 학교 체육을 대표하는 양 팀의 해체 과정을 바라본 지역 체육계에는 재단측의 무성의와 관련 기관의 수수방관을 질타하고 있다.

지역 체육계의 한 원로는 “없는 팀도 만들어 육성할 판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팀을 해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학생 체육에 무관심한 송원재단측과 시 체육회, 시 교육청 모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천을 살리자” 광주시 새마을회(회장 김동기)는 25일 광주천에서 새마을 지도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새마을 영산강, 광주천 살리기 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최고 85.5mm ‘단비’

## 가뭄 해갈·산불 예방 큰 도움

25일 장성지역이 역대 2월 최고 강우량을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불가뭄 해갈과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

비는 26일 오전에 그치고 주말과 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장성 85.5mm를 최고로 보성 80.5mm, 순천 77.5mm, 광주 68.

5mm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등 남도(南道) 전역에 걸쳐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봄비가 대지를 적셨다.

이날 장성에 내린 비는 2월 중 내린 양으로는 기상관측 개시(1938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1954년 2월 46.4mm(광주 기준)를 훌쩍 뛰어넘는 이례적인 ‘봄비’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26일에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강우량 (25일 18시 현재)	내리다가 그치겠다.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 5~20mm, 그밖의 지역은 5~10mm. 주말(27일)과 휴일(28일)은 구름이 다소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별로 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68.5
장성	86.0
보성	80.5
순천	77.5
담양	73.0
영광	59.5
곡성	56.5
목포	34.0
여수	36.5

(단위:mm)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리베이트 제약업체 등 30곳 세무조사

세금계산서 없이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의약품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특히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 조사를 위해 법인세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국세청은 25일 “탈루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

업체 14곳과 의약품기 제조·판매업체 12곳 등 모두 3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자다.

또 의뢰기기, 치과재료 같은 의료 소모품과 온열기 등의 의료보조기구를 유통하면서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혐의 등이 있는 의뢰기기 제조·판매업자도 포함됐다.

한편 대한의사회가 같은 날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과 관련,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리베이트 생벌죄 도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퇴임 교원 328명 훈·포장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각각 25일 대회의실에서 2010년 2월말 퇴임하는 교직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을 가졌다.

시교육청 전수 대상자는 총 106명이며, 도교육청은 222명이었다. 이와 함께 전남대는 26일 정년퇴임식을 갖고 해당 교수·직원에게 훈·포장을 전수할 예정이며, 조선대와 호남대 등도 퇴임식을 열어 훈·포장 전수식을 가질 예정이다.

명단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검찰 ‘DJ 명예훼손’ 지만원씨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가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매체에 “김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차내 밀담을 통해 ‘남치사건 때 여러모로 힘을 써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다’,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와 협력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 우치동물원 코끼리 새끼는 언제 낳나



광주 우치동물원의 최고 스타인 암 코끼리 ‘쏘이’와 ‘붕이’. 이 두 마리는 지난해 12월 초 임신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과 동물원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국내에서 코끼리 출산은 지난

## 출산 예정일 한 달 지나 “유산 된 것 아니냐” 우려 수의사 “3월 초에 기대”

1992년 서울대공원의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우치동물원 주변에서는 코끼리 새끼 탄생 여부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예정일이 한 달 이상 지나도록 출산 기미를 보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상 임신 아니냐?”, “혹 유산된 것 아니냐”와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임신 현상을 보인 코끼리들의 출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25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태소변·혈액검사와

3D 초음파 검사를 통해 12년생 암컷 몸무게 3t의 아시아 코끼리 두 마리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배속에서 아기 코끼리로 추정되는 태아의 갈비뼈와 등뼈 일부를 발견했다.

코끼리 두 마리의 교미(交尾) 시기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 사이. 임신기간이 22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지난 1월께 새끼가 세상의 빛을 봤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식이었다.

우치동물원은 교미에 따른 수정시기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지만 예정 보다 늦어져 가슴을 졸이고 있다. 다만 두 마리 코끼리의 짝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유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치동물원 최중욱 수의사는 “코끼리의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봤는데, 부풀어오른 젖샘과 양 복부가 아래로 축 처지는 임신 말기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해 늦더라도 3월 초 정도 출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7분 해질 18시 25분 달돋이 15시 37분 달질 05시 04분

아침 공기 좋아요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차차 개겠다.

광주	흐림	12/16°C
목포	흐림	9/15°C
여수	비온뒤 맑음	11/14°C
완도	흐림	10/14°C
구례	비온뒤 맑음	11/16°C
애남	비온뒤 맑음	10/14°C
장흥	흐림	10/14°C
고흥	비온뒤 맑음	10/14°C
순천	흐림	11/16°C
영광	흐림	10/15°C
진도	흐림	10/14°C
전주	흐린뒤 맑음	9/15°C
남원	흐린뒤 맑음	10/13°C
육산도	흐림	7/11°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일몰	일출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2:36	05:1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9:46	01:02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토)	28(일)	3/1(월)	2(화)	3(수)	4(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5/13	4/13	4/10	3/12	2/12	4/8

화짝 웃세요

롯데손해보험